

**과** 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DRAM 제품의 수율 향상 및 품질을 개선한 (주)하이닉스반도체 박성계 수석 연구원과 가공목재용 전사지를 개발하여 국내 전사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서울화학(주 정종석 대표를 '이달의 엔지니어상'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**대기업 부문 수상**  
**자료** 선정된 (주)하이닉스반도체의 박성계 수석연구원은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소자의 기초 요소인 트랜지스터를 개발해 온 엔지니어로서

DRAM 제품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인 저전력 및 고속 동작의 특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 DRAM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켰고, 불량률을 대폭 감소시키는데 공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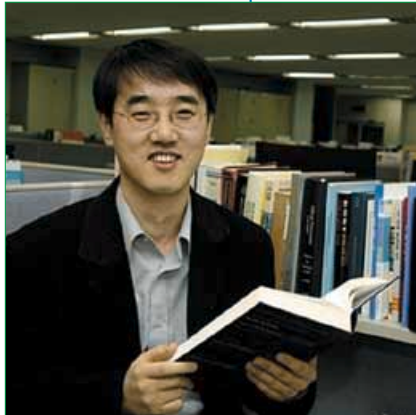
박 연구원이 개발한 저전력 셀(Cell)기술은 DRAM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리라이트할 때 낮은 전력에서도 효과적으로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1천만분의 1 확률에 해당하는 불량률의 원인을 찾아내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이 기술은 반도체 DRAM 제품의 수율 및 품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로 DRAM의 집적도가 증가될수록 특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기술이다.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련 신기술 및 노하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최첨단 기술이다.

이를 바탕으로 하이닉스반도체는 블루칩(0.15um), 프라임칩(0.13um), 골든칩(0.11um) 및 다이아몬드칩(0.09um) DRAM 제품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켰고, 양산 제품의 수율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. 또한, 반도체 DRAM 동작에 있어서 각 셀에 저장된 신호를 전기적으로 직접 측정해 낼 수 있는 평가기술을 업계 최초로 고안해 DRAM 제품의 수율 향상 및 품질개선을 실현하였다.

**중소기업 부문 수상자**로 선정된 서울화학(주)의 정종석 대표는 불모지였던 전사지 산업 한 분야만을 30여년동안 개척해 온 엔지

## DRAM 수율향상 및 품질향상 / 가공 목재용 전사지 개발



<대기업 부문>  
**박성계 (주)하이닉스반도체 연구원**



<중소기업 부문>  
**정종석 서울화학(주) 대표**

니어로 가공목재(MDF)용 전사지를 개발하여 수출하는 등 국내 전사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.

정 대표가 개발한 가공목재(MDF)용 전사필름은 자연목 질감의 뛰어난 프린팅 효과와 중복 코팅이 가능하며 내마모성,

내광성 및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 기존 미국, 독일 등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대체하였고, 국내시장도 7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.

2004년에는 MDF용 전사필름으로 전체 매출의 45%인 150만 달러를 수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. 또한 연구 개발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초 개발했던 전사용지보다 접착력이 우수하고 햇빛 등으로 인한 전사용지의 탈색현상을 대폭 개선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국내 전사지 산업 발전에 공헌하였다.

가공목재용 전사필름은 가공목재의 표면에 별도의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건식 접착하는 마감재용 필름으로, 장식용 가구 및 부엌 가구 등에 사용되며 내구성, 내습성, 내광성 및 내열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.

'이달의 엔지니어상'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·포상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현장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시상해오고 있으며,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엔지니어 각 1인을 선정하여 과학기술부 부총리상과 트로피 및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고 있다. ㉔

정리\_류통은 기자 teryu@kofst.or.kr